



다이파이동 골목 콘지 맛집 와키의 주력메뉴인 콘지와 요우티아오



실크스타킹 밀크티로 유명한 란푹유엔과 인기메뉴 프렌치 토스트



홍콩 딤섬 전문점의 진통이 살아있는 린흥 티하우스와 대표 딤섬들

복적복적...소박한 홍콩의 아침에 녹아들다

홍콩 현지인처럼 아침식사하기

▶**콘지 전문점 '와키'**
고명 곁들인 중국식 죽...한 그릇이면 든든

▶**중국의 00천국 '란푹유엔'**
한국 분식집처럼 정감가는 메뉴들 중독성

▶**홍콩 3대 딤섬 '린흥 티하우스'**
91년 역사...다양하고 딤섬 골라먹는 재미

어느 정도 해외여행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로망이 있다. 여행지의 평범한 로컬 주민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이른바 현지화 단계이다. 그래서 도전했다. '홍콩 사람처럼 아침 먹기'. 동남아 국가들은 무더운 기후와 문화적 특성 때문에 아침식사를 집이 아닌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홍콩은 지역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침식사의 '명소'들이 있다. 이번엔 그중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가장 홍콩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세 맛집을 찾아갔다.

●부드러운 콘지와 선지의 조화, 와키(威記·Wai Kee)

중국인의 일반적인 아침 식사인 콘지(Congee·중국식 죽) 전문점이다. 콘지는 두유, 요우티아오(중국식 파베기)와 함께 중국 서민들의 아침 식탁에 거의 매일 오르는 메뉴이다. '와키'는 현지인들이 콘지 맛집으로 손꼽는 가게다. 센트럴에 있는 홍콩식 포장마차, 다이파이동 골목 끝에 있는데 역사가 67년이다.

콘지는 우리네 죽에 비해 부드럽다. 쌀알의 느낌이 거의 없어 미음이나 스프와 같은 식감이다. 여기에 오징어 같은 해물, 돼지고기, 소고기, 염지 오리알 등 다양한 고명을 곁들인다. 그중 돼지 선지를 넣은 콘지가 인상적이다. 재료 자체의 선입관과 살짝 공포스런 외관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먹어보면 젤리처럼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콘지의 어우러짐이 좋다. 격정했던 잡내도 없고,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함을 느낀다. 통상 콘지와 곁들이는 메뉴는 요우티아오나 튀김 국수가 일반적이지만, 와키에서는 그와 함께 창편(라이스를 찜)도 추천한다. 쌀로 만든 얇고 부드러운 피 속에 각종 재료를 넣은 창편은 딤섬집

필수 메뉴 중 하나인데, 와키의 것은 유난히 보들보들해 매력적이다. 다양한 속을 넣은 것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 것도 넣지 않고 창편 피만 말아서 살짝 양념장을 뿌린 것이 담백해 입맛을 당겼다.

●밀크티와 프렌치 토스트, 란푹유엔(蘭芳園·Lan Fong Yuen)

소호에 있는 이 집은 관광객에게는 차의 부드러움을 높이기 위해 차를 실크스타킹으로 거르는 '실크스타킹 밀크티'로 유명한 가게다. 1952년에 문을 열어 65년째 영업하고 있고 알란람, 주윤발 등 홍콩 연예인들의 단골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만약 속소가 근처에 있거나 아침형 인간이라면 란푹유엔의 아침식사에 도전해 보라. 복적거리면서 활기차고,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홍콩인의 아침 정경을 느낄 수 있다.

가게 안의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손님들이 어깨나 등을 맞댈 정도로 좁다. 비슷한 로컬 맛집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합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벽에는 80년대 스타 알란람의 사진이나 옛 영화 포스터 등이 붙어 있어 아련한 정

감을 일으킨다. 란푹유엔의 메뉴는 유별나거나 대단한 것은 없다. 일품요리 전문점이 아닌, 우리네 '00천국' 같은 분식집이어서 프렌치 토스트, 볶음국수, 라면, 돈카스 샌드위치 등의 스낵류가 대부분이다. 시그니처 메뉴로 꼽히는 프렌치 토스트도 한국 카페에서 본 예쁜 플레이팅과는 거리가 먼 투박스런 모양새다. 하지만 먹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릇을 비우게 되는 은근한 중독성이 있다. 좁고 복적거리는 분점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면 침사추이와 순탁센터에 있는 분점으로 가는 것도 좋다.

●91년 역사의 홍콩 3대 딤섬, 린흥 티하우스(蓮香樓·Lin Heung Tea House)

딤섬의 본고장답게 홍콩에는 수많은 딤섬 전문점이 있다. 그중에는 미술랭 3스타를 받은 포시즌스호텔의 톱칭처럼 고급의 극치를 달리는 곳도 있고, 홍콩 딤섬의 교과서로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딤호안'도 있다. '린흥 티하우스'도 홍콩을 대표하는 딤섬 맛집이다. 흔히 룩유 티 하우스, 예민방과 함께 '홍콩 3대 딤

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1926년에 창업해 91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 세 맛집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지만, 그만큼 현지인의 생활 속으로 속 들어간 듯한 즐거움도 크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딤섬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물론 딤섬 각각의 맛도 뛰어나다. 하지만 린흥 티하우스의 매력은 홍콩 딤섬집의 전통이 살아있는 가게 분위기에 있다. 린흥 티하우스는 종업원이 각종 딤섬이 올라간 손수레(웨판)를 끌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주문받은 옛 방식을 고수한다. 딤섬수레가 오면 손에 주문표를 든 손님들이 모여들어 도장을 받은 뒤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 처음에는 정성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지만, 익숙해지면 고르는 재미가 남다르다.

단 위너 손님에 많다 보니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테이블을 닦아주거나 수저와 식기의 청결에 대해서는 알아서 주의해야 한다. 주위를 보면 휴대용 티슈로 테이블을 닦고, 뜨거운 찻물에 수저와 찻잔을 씻는 현지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홍콩 | 글·사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양형모의 아이리브 스테이지 더 가이즈

어깨가 들쭉들쭉...몸으로 즐기는 연극

신나는 음악과 포퓰의 갈 군무 '엄지척'

사전정보가 없다면 뮤지컬로 오인할 정도로 음악과 안무가 풍성한 연극이다. 제목은 '더 가이즈(The Guys)'. 여기서 '가이즈(남석들)'는 '포퓰'이라는 4인조 남자팀을 지칭한다.

한 마디로 '작품 아이돌그룹'이다. TV 카메라 앞이 아닌 나이트클럽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룹이다. 한때는 '나이트클럽의 빅뱅'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저 한 물간 라이브 DJ팀일 뿐. 트랜

드에 뒤처져 영입안을 겪게 된 나이트클럽들이 속속 문을 닫거나 성인클럽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극 '더 가이즈'는 한 마디로 한물간 나이트클럽에서 두 물쯤 간 보이그룹이 먹고 사는 이야기다. 무대에서는 아이돌그룹 못지않은 춤과 갈 군무를 선보이며 박수를 받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허름한 선술집에 모여 앉아 부모님 병원비, 아이 교육비, 카드빚 격정에 쓴 소주를 들이키는 어깨 처진 남자들이 뿐이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우중충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은 완전 정반대로, '대놓고 놀아보자'는 작품이다. 작품 속 무대부터가 나이트클럽이 아닌, 도시 변두리의 (망해가는) 나이트클럽을 고스란히 소극장에 옮겨다 놓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이곳은 공연장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라고 속삭였다.

이런 연극은 머리를 비우고 봐야 한다. 작품의 메시지, 해석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즐기는 것이 이런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두 눈을 무대에 고정시킨 채 딱딱히 머리를 움직이고, 어깨를 흔들려주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톡치면서 보는 작품이다. 그렇게 몸을 먼저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외친다. "재밌어! 재밌다구!"

'더 가이즈'는 어드벤처프로젝트의 야심찬 기획이 탄생시킨 작품이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만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형태의 단체다. 포퓰의 갈 군무와 짤내 나는 연기도 좋지만, '더 가이즈'의 온도를 팔팔 끓게 만드는 나이트클럽의 여성 DJ 마틸다도 매력만점인 캐릭터다.

연극 '더 가이즈'를 보면서 황당하게도 공감 생각이 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감과 함께 나오는, 큼직큼직하게 씌어낸 시름달달한 각두기다. 아무리 잘 우려했던 고기국물이라 해도, 밥 말아 세 수저에 한 번은 각두기 하나 집어 먹어줘야 개운하다. 마음을 울리는, 고만하고 속제가 남는 묵직한 작품에 눈과 마음이 살짝 지쳤다면 '더 가이즈'같은 작품 한 편쯤 봐줘야 어깨가 가벼워진다. '더 가이즈'는 확실히 재밌었고, 맛있었다. 또 보고 싶다.



왕년의 '나이트클럽 빅뱅'으로 불렸던 포퓰 멤버들이 업소 출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차를 타고 달려가는 장면을 연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어드벤처프로젝트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목에 걸어 착용하는 의료기기 LOBAC M6 근육통증 완화 의료기기

목걸이용 LOBAC M6, 손목용 LOBAC LH, 허리용 LOBAC LP3

2017년 로박엠6 목걸이용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최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로박엠6 목걸이용'이 출시되었다. 이 목걸이용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과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료기 품목허가 제04-784호)다.

알루미늄 판에 아노다이징 처리한 로박엠은 가벼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로박엠6 목걸이용의 신상품

LOBACM1, M2 출시된 가운데 주식회사 나라컴퍼니 대표는 "기존 로박엠6 목걸이용 펜던트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타원형이 아닌 원형으로 새롭게 만든 상품이다"면서 "펜던트에 4가지 색상을 넣어 상품 디자인에 다양성을 더했다."라고 밝혔다.



광고심의 필 심의번호 2015-GN1-05-0014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문의 070-4914-5205 (www.lobac.or.kr)



로박엠



로박엠 남여공용



남여공용 허리 주변 근육통증완화 LOBAC LP2



남여공용 로박엠 컬러형 LOBAC M1, M2 파랑



남여공용 로박엠 컬러형 LOBAC M1, M2 검정



남여공용 로박엠 컬러형 LOBAC M1, M2 빨강



여성용 손목 주변 근육통증완화 LOBAC LH



남성용 손목 주변 근육통증완화 LOBAC LH



남성용 발목 주변 근육통증완화 LOBAC LH-02